

▶ 2일차(6/23)



아침을 먹고 대만대학교에 도착했다.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는데 학생들 대다수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넓은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았다. 세계 대학 순위가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 높은 국립 대만대학교는 우리나라와는 캠퍼스 문화가 사뭇 달랐다. 주변에

주점도 크게 보이지 않았고 학생들은 꾸미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었다.



학교 정문부터 걸어가기 시작한 우리 일행은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야자수가 양쪽에 늘어선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레게머리에 이어폰을 귀에 끼워 노래를 듣는 학생도 보이고 커플들이 자전거를 같이 타고 다니는 모습 등 이런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대학과 비슷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가도 똑같은 풍경과 날씨도 많이 후덥지근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지 못했다. 그러다 도중에 호기심에 들어간 어느 학교 건물은 아늑하고 아담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보였다.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문으로 걸어나오던 중 대만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대만은 9월에 2학기가 시작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에 졸업을 한다고 했다. 더운 날씨에 긴 옷을 입고 찍는데도 학사모를 쓴 학생들의 얼굴은 다들 미소를 띠며 즐거워보였다. 이번 졸업이 99회라고 한다.

를 띠며 즐거워보였다. 이번 졸업이 99회라고 한다.



대만 대학교를 나와 이동한 곳은 야류 해양 국립공원이었다. 이곳은 바닷가 근처에 있어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마저 뜨겁고 습해 생각보다 더웠다. 이곳의 독특한 생김새의 지형 경관은 억만년 동안 지구의 지질변화를 거쳐 조산운동과 풍화, 침식현상이 교차

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수목 사이로 걸어가다 보니 여왕머리가 보였다. 여왕머리는 위쪽은 굽고 큰 구슬형상의 바위이며, 아래쪽은 비교적 가는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버섯 바위의 대표적인 것이다. 일년 내내 비바

람과 햇빛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만지는 바람에 침식 속도는 가속화되었고, 현재 가장 가는 부분인 목둘레는 단지 142cm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여왕머리를 보고난 후 한 참을 걸어가니 버섯 바위가 떼로 무리지어 있었다. 걸을 때 딱딱하고 매끈한 바닥표면이 암석이라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바닥은 공룡들이 찍어놓은 듯한 발자국처럼 울퉁불퉁하기도 했다. 버섯 바위의 머리 부분은 단단한 암석에 크고 작은 구멍이 가득한 모습이 마치 벌집과 같아 벌집 바위라고 부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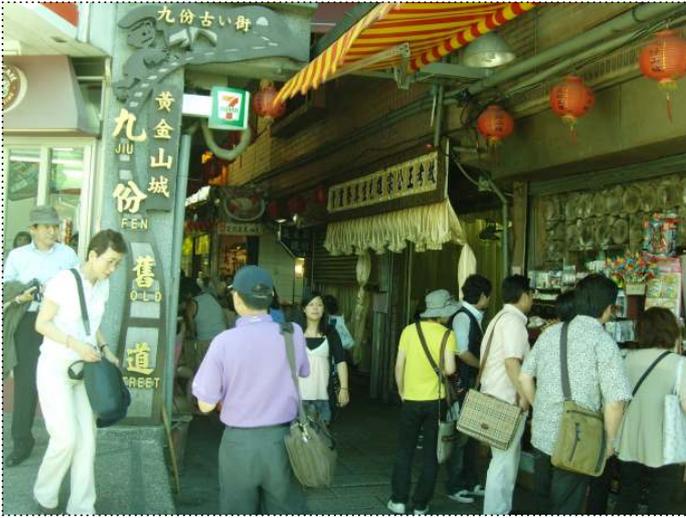
은 구멍이 가득한 모습이 마치 벌집과 같아 벌집 바위라고 부른다고 한다.



버섯 바위 근처에는 촛대 바위가 있었다. 원추형의 돌 안에 물이 담겨있고 중앙에는 동그란 돌이 들어있어 마치 촛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먼저 구슬 형태의 그 동그란 돌이 주변의 돌보다 단단하고 해수의 침식에 강하여 주변의 돌이 침식되어 떨어져 나간 후에 구슬 형태의 돌만이

지면으로 돌출된다고 한다. 파도가 돌출된 돌을 때리면서 자연스럽게 주위에 유동이 생기게 되고, 아래쪽으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파진다고 한다. 그 후 그 테두리 부분은 매우 단단한데 해수는 테두리를 따라 아래 방향으로 각아 내려가 촛대 형태를 형성한다. 햇볕, 바람, 빗물, 파도, 생물의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으로 생성된 기이한 풍경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점심을 먹고난 후 다음 코스는 영화<비정서시> 및 드라마<온에어> 촬영지로 유명한 지우편이었다. 지우편은 해상공원에서 30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약간 고도가 있는 산지여서 대만인들의 유명한 피서지이다. 이곳은 원래 탄광도시였으나

점차 쇠퇴하면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가이드분께서 100 대만달러로 현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인증사진을 찍는 미션을 내주셨다. 가이드분은 특히 초우또푸라고 하는 초두부, 일명 썩은 두부를 먹고 인증사진을 찍어올 경우 1등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셨다. 초우또푸는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냄새는 정말 고약했다.

우리가 간 곳은 산 중턱의 시장 골목이었다. 이러한 골목 구조의 가게들이 상당히 길게 자리하고 있었다. 먹을거리도 많고, 기념품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저것 기념품도 사고 먹을거리도 사먹다 보니 벌써 저녁시간. 저녁 메뉴는 대만식 전통 샤브샤브였다. 샤브샤브는 종업원 분께서 직접 다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고기를 넣었다가, 두 번째는 면을 넣었다가, 세 번째는 밥을 넣어 끓였다.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다. 밥을 먹고 난 뒤

호텔에 가서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 이동하면서 봤던 대만 총통부를 찾



아가자는 얘기가 나왔다. 대만의 마지막 밤. 왠지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은 잘 모르지만 이동하면서 봤던 건물들을 떠올리며 무작정 찾아갔다. 길을 잃을 뻔 했지만 가게에 들어가서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낮에 버스 안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역추정하면서 결국

에는 도착하였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사진만 조금 찍고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찾아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시간낭비였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다가 지하철을 발견했고 혹시 아는 역이 있을까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도 용산사역이 있었다. 용산사 근처에서 지하철역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돈 계산 후 지하철을 탔다. 대만 지하철은 깨끗했고 한국 지하철보다 속도가 빨랐다.



용산사역에서 내린 우리는 다리가 너무 아픈 관계로 야시장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다. 지하철까지 탈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임기응변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배낭여행을 온 듯한 느낌에 재밌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피곤함에 지쳐 기절한 것처럼 잠이 들었다.